

“도민 체감 변화 이루겠다”

민주 이원택 의원, 새해 벽두부터 도내 곳곳 민생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군산·김제·부안’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약자나 소외계층 및 청년 노동단체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새해벽두부터 도지사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의 애환이나 불편함이 있는 현장이라면 절대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천명했다.

주에서 창업준비생 및 가톨릭농민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군산으로 이동해 새마을부녀회와 만나 봉사현장의 고충을 나눴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군산 지역 ‘정공창립’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화로 모색을 논의했다.

강행군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으며 3일 오전 김제 백산면 폐기물 소송 관계자들을 오후에는 익산 한우육종협회 회원들을 차례로 만나 민원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에는 김제 성산공원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도민들의 새해 소망과 민원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처럼 이 의원은 논란의 현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도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의면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엔 현장에서 접수된 도민들의 건의 사항을 단순히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2026년을 시작했다”며 “새해에는 말보다 발로 뛰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 한해 △현장을 향한 △변화를 찾는 △혁신을 담은 △미래를 여는 △문제를 푸는 직진 정치에 각각 나선다 /권희성 기자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찾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인지하지 못한 사무장의 과거 행위로 의원직 상실은 부당”

민주 신영대 의원



의 행위에 대해 의사 재배나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안으로는 저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됐고, 현재는 이른바 뇌물 혐의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인물조차 법정에서 “신영대 의원과 통화한 적도 없고, 왜 증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엮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인물을 2년간 60차례 넘게 조사하며 압박과 회유, 거짓 진술 유도를 반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뇌물 사건과 무관한 총선 상황까지 들여다보며 별건 수사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문제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2004년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고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처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그는 “할 수도 없었던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결보다 먼저 확정될 경우의 혼란도 우려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법리적 모순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국민의 사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판 소원 제도, 이른바 4심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저 개인의 희생이 사법개혁의 작은 디딤돌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0/민호기자·군산=김만호기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나서야”

민주 안호영 의원, 도민·지역사회에 적극 행동 호소

“지금 필요한 것은 목소리… 전북 국회의원들과 연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안주·진안·무주)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호소했다.



있다”며 “수도권 정치권과 언론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전북 이전 주장을 사실상 용단폭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은 단순한 공장 유치 차원을 넘어 전북의 산업 지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재설정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전북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정치권과 언론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전북 이전 주장을 사실상 용단폭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넘어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싸움을 나설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당·정·청 협력 실질화 할 것” | 원내대표 출마 민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후 숨겨진 행보를 이어가며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백봉신사상이 강조하는 공직자의 책임과 품격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수상을 더 잘하려는 책정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당원 소통과 언론 행보를 병행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 공석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생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험과 실력을 갖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회,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만큼 즉시 작동하는 리더십으로 당·정·청 협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직후 한 의원은 방송 출

연과 당원 접촉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원내대표 출마 배경과 향후 국회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민생 안건과 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정치적 흐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 압승을 함께 만들었고, 대선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정권교체 승리를 이끌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승리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행보는 겸손과 책임

을 위한 자세를 원천 차단하려는 수도권 중심 사고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넘어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싸움을 나설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익산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 만들 것”

민주 도당 익산갑지역위 제1차 지역당원대회 개최

지역위원회 정상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익산갑지역위원회가 지역 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익산갑지역위원회(위원장 송태규)는 7일 오후 2시 익산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1차 지역당원대회’를 열고,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에 비롯한 주요 당무기구 준비를 마쳤다.

이날 당원대회에서는 지역위원회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지역사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되며, 익산갑지역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익산갑지역위는 향후 당원 중심의 체계적인 당무 추진과 지역 정치 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높은 말의 기운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익산시

갑지역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무위원 여러분의 무게는 책임감과 헌신으로 담원들과 한마음으로 단결해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송태규 익산갑지역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줄서는 계파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익산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수필집 제목을 인용해 “‘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말처럼, 계파나 특정인이 아닌 오직 시민에게 줄서는 정치로 흔들림 없

이 직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긴장과 각성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치로 익산갑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강도 높은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약 1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익산갑지역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축하하고 결의를 다졌으며, 한병도·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지역위원회의 새 출발에 힘을 보탤다. /0만호기자·익산=이재훈기자

“오직 당심,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 | 최고위원 출마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이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누비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영남, 강원까지 당원들을 직접 만나며 당심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인 1월 3일에도 이 의원의 일정은 쉼이 없었다. 경주 지역위원회 당원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영남권 지역위원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강원도 당원 간담회와 춘천시장 면담까지 소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일 오전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제주도당 산란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고, 이어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에는 곧바로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울산시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대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검찰·사법 개혁과 내란 형상을 원수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는 당원 1인 1표제 재추진과 함께 당원 참여예산제, 지구당 부활 등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성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으로 당원들과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그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0/만호 기자